

KAIST
경영대학,
KCB 좋아요



- 글로벌 리더 양성 장학후원
- 우수 석학 세계수준 연구 후원
- 학생 집중 연구시설 구축 후원

*To become the best business school
in Asia, and the top 20 business
school in the world by 2025*

이 약정서를 채우시고,
사진 촬영 후 1666-3249로 문자전송 하면 끝!

문의: 02-958-3249, nrjung@business.kaist.ac.kr 정나라 KAIST 경영대학 대외협력실

KAIST 경영대학 KCB 정기후원

작성 후 휴대전화로 촬영, 1666-3249(문자전송)으로 전송하시면 접수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월정기부금액(매월) :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자동이체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휴대전화 :	이메일 :
주소 :	@
☐ 재학생 ☐ 동문 ☐ 학부모 ☐ 교직원 ☐ KCB	전공(과정) 입학 (학생성명:)
입학 년	

자동이체를 위해 수집하는 은행명,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금융기관에 제공되고, 회원등록 및 소식 제공,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정보로 자동이체 결과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정기기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 귀중

정기기부로 KCB Dreamers CLUB에 가입되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전액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business.kaist.ac.kr/giving KCB Dreamers CLUB Tel : 02-958-3249

Frontier

KAIST 경영대학

Vol.24 No.1
2016 SPRING

SPECIAL ZONE

KAIST 경영대학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

INSIGHT ZONE

경제인을 양성하자

20번째 생일을 맞는 KAIST 경영대학에게

국내 경영대학원의 위기,

해외 경영대학원에서 길을 찾다

KAIST 경영대학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진실

20주년 KAIST 경영대학과 함께

봄을 맞는 16학번 신입생



Frontier Contents

2016 Spring



SPECIAL ZONE

04 TOP 20 BUSINESS SCHOOL by 2025
KAIST 경영대학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



INSIGHT ZONE

- 06** 경계인을 양성하자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장 권영선 교수
- 08** 20번째 생일을 맞는 KAIST 경영대학에게
- 10** 국내 경영대학원의 위기,
해외 경영대학원에서 길을 찾다
- 12** KAIST 경영대학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진실
- 14** 20주년 KAIST 경영대학과 함께
봄을 맞는 16학번 신입생



GLOBAL ZONE

- 16**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성공 사례를 전파하다
2015 KAIST 개발도상국 금융 콘퍼런스
- 18** KAIST 경영대학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 20** Global Family in KCB,
국제학생들을 위한
오픈 하우스 추석/성탄절 파티



POWER ZONE

- 22**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 김진희 학우를 만나다
비디오팩토리 대표 김진희 학우(정보경영 석사과정 '14)
- 24**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즐겁게 기업을 경영하는
김진기 동문을 만나다
AK 아이에스 대표이사 김진기 동문(AIC 6기, EMBA 27기)
- 26** 녹색성장대학원 학생 연구 발표회,
성황리에 열리다
- 28** 세계를 이끌 KCB 동문들, 힘차게 도약하라
2016 학위수여식
- 30** 금융의 Next Generation을 선도한다
금융애널리틱스 심화과정



INSIDE ZONE

- 32**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과 브랜드 고고학,
그리고 새로운 도약
- 34** 산악 동아리 소개
- 36** 신입생들을 위한 학교생활 꿀팁
- 37** KAIST 경영대학과 세월을 함께한 맛집
- 38** Book Review
- 40** KCB News

ALUMNI ZONE

- 42** 동문 소식
- 43** 발전 기금

Frontier 22기 학생기자단

김경현	녹색경영	석사	khkim1@business.kaist.ac.kr
김유리	IMMBA	석사	yuri.kim@business.kaist.ac.kr
김은철	TMBA	석사	auagfe@business.kaist.ac.kr
김지나	녹색경영	석사	jnkim0305@business.kaist.ac.kr
김형진	경영공학	박사	hjkim13@business.kaist.ac.kr
유희찬	경영공학	석사	yoohc1990@business.kaist.ac.kr
조형진	TMBA	석사	hjcho15@business.kaist.ac.kr

TOP 20 BUSINESS SCHOOL by 2025

KAIST 경영대학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



지난 4월 8일,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KAIST 경영대학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국내 최초 전일제 MBA 도입, 선도적인 산업특화 경영교육 등 KAIST 경영대학이 이룩한 파격적인 시도와 성과는 한국 경영 교육을 이끌어온 개척자의 족적이었다. 그러나 20년간 쌓아온 다양한 성과들에 안주하지 않고 “2025년까지 세계 TOP20 명문 경

영대학으로 도약”이라는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KAIST 경영대학의 전, 현직 교수진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강성모 KAIST 총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KAIST 경영대학 발전위원을 비롯한 내외贵宾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동석 KAIST 경영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비전 선포식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년 동안 시대를 앞서온 KAIST 경영대학은 다시 한 번 출사표를 던집니다. 국제적 감각, 기술과 경영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스쿨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어 KAIST 강성모 총장은 “기술과 경영의 결합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기술경영과 경영공학의 통합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KAIST 경영대학 20년사 발간위원장 김명배 교수는 KAIST 경영대학이 걸어온 20년의 역사를 재조명했다. 1980년 경영과학전공으로부터 시작되어 1996년 테크노 경영대학원이 개원하기까지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원 이후 20년간 KAIST 경영대학이 빚어낸 다양한 업적들까지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이어진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에서는 KAIST 경영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감사패를, 안병훈, 박성주 KAIST 명예교수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람은 교육으로부터 비롯된다. 경영대학이 길러낸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KAIST 경영대학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 LDP 무용단의 역동적인 축하공연이 끝난 후, 김동석 학장의 경영대학 20주년 비전 선포가 있었다. Building

Excellence Together! 라는 모토를 가지고 기술과 경영을 결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경영대학,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세계 TOP20 경영대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 일환으로써 기술과 경영이 결합된 Industry 4.0을 선도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안착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세계를 발전시키며,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 등 세 가지 Mission을 제시하였다.

김영걸 KAIST 경영대학 대외부학장은 경영대학 발전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조달 방안을 발표하였다. KAIST 경영대학의 현재 기금 상황은 안타깝게도 국내 주요 경영대학의 1/5, 하버드 경영대학의 1/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기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TOP 20 BUSINESS SCHOOL by 2025”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기금은 현재 기금 수준의 3배가 넘는다. 20년 동안 조성해온 기금의 2배가 넘는 액수를 5년 안에 모아야 하는 것이다. 상당 부분은 기업기부와 개인 고액기부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기금 조성을 위해 동문들의 관심과 애정도 필요한 상황이

다. 학교는 동문들의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또 다른 다양한 캠페인들을 계획 중에 있다.

김영걸 대외부학장의 발전전략 소개 이후 KAIST 경영대학의 비전 달성에 기여할 발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고춘홍 ㈜이브자리 회장, 권오규 발백KPL코리아 회장, 김주인 시즈글로벌 회장, 송필호 중앙일보 부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을 발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어 허기호 ㈜한일시멘트 회장의 1억 원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허기호 회장의 출장으로 인해 박진규 한일시멘트 상무가 대신 전달하였다. 비전 달성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발전위원들과 발전기금을 기부한 허기호 회장을 향해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KAIST 경영대학장을 역임하고 등단 시인으로도 활동 중인 이재규 KAIST 경영대학 석좌교수의 축시 낭송이 있었다. 축시는 KAIST 경영대학이 걸어온 역사, 기술경영학부와의 통합, 그리고 KAIST 경영대학이 나아갈 길과 사명을 주제로, 정보미디어MBA 박싯별 동문이 함께 낭송하였다. 시 내용에는 KAIST 경영대학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KAIST 경영대학 20년 발자취〉



경계인을 양성하자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장 권영선 교수



경계인은 중심지가 아닌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부에 있다 보니 중심부에 위치한 주류 세력보다 경계인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적다. 특히, 세계가 안정적일 때는 그렇다. 그러나 중심부의 정치경제 체제를 뒷받침하는 경제구조가 기술의 발전으로 와해되기 시작할 때, 중심부는 문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 이는 중심부 사람들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기존 경제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도 위기를 느끼고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추구하나 그들의 변화 속도는 경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와 부대끼며 적응해온 경계인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것과 같이 중심부는 결국 경계인의 차지가 되나 중심부를 차지한 경계인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경계인에 의해 교체되어 간다. 이는 마치 태극의 중심부로 들어간 주변부 선이 중심을 지나 다시 주변부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고 그러한 변화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인류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경계인의 중심부로의 환류 과정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앞설 수 있게 되어, 세계 경제에서 중심부로 떠올라 세계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경제는 현재 제4차 산업혁명 과정에 진입해 있다. 국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경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기술을 활용할 줄 알고 공학인과 소통할 줄 아는 경영인이다.

경계인은 프론티어(Frontier)에 위치한 사람을 의미한다. 경계는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곳이고, 다른 두 문화가 인접한 곳이다. 그러므로 경계에서는 물질 간의 결합이 시작되고, 이질 문화 간 교류가 활발하며 다른 지식, 경험, 시각을 가진 인간들의 교류가 왕성하게 발생한다.

경제를 지탱해온 산업이 몰락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더디다. 몰락하는 산업에서 해고된 인력이 새로운 산업에 빠르게 흡수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보니 고용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고용불안은 소비위축을 야기해 경기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가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있는 것이다.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선순환의 과정으로 전환시키려고 모든 국가가 노력하고 있으나 고용불안이 경기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산업의 구조적 변화라는 근본적 요인에서 시작된 것이다 보니 백약이 무효한 상태이다.

우리 경제의 살길은 바로 구조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구조적 변화를 중심부에서 추진하면 그 속도가 빠를 수 없다.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누가 빨리 허물려 하겠는가! 그 어느 때보다 변화를 주도할 경계인의 등장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경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기술을 활용할 줄 알고 공학인과 소통할 줄 아는 경영인이다. 현재 진행되는 변화의 원천인 기술발전을 활용할 줄 아는 경계인만이 인간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채워줄 신산업(新産業)을 누구보다 앞서 개척할 수 있다.

KAIST 경영대학은 타 경영대학과 다르게 공학과 자연과학이 강한 학교에 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갖춘 공대가 중심인 대학에 경영대가 있다 보니 기술을 활용해 경영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주도할 경계인을 양성할 여건을 다른 어느 대학보다 잘 갖추고 있는 것이다. KAIST 경영대학은 산업 사회로의 전환기에 혁신적인 테크노 경영대학원, 다양한 MBA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경계인 양성에 기여했으나 이후 중심부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에 치중한 나머지 제4차 산업혁명기에 필요한 새로운 경계인 양성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KAIST 경영대학이 혁신의 경계에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기존 중심부를 대체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경계인을 양성하는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바로 경영대의 교수들 스스로 경계인이 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활력을 상실한 중심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과감히 타 경영대에 넘겨주고, 새싹이 돋아나는 창조의 경계(Frontier)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교육을 개척해 10년 또는 20년 뒤 새로운 중심부에 우리 경영대가 서 있기를 기대한다.

20번째 생일을 맞는 KAIST 경영대학에게

색색의 포스트잇에 메시지가 담겼다. 학생들은 흰 백설기 떡을 들고 스무 번째 생일을 맞는 KAIST 경영대학에 축하 메시지를 건넸다. 어느덧 성년의 나이가 된 KAIST 경영대학(KAIST College of Business, KCB). KCB가 지내온 시간을 인생이라 생각했을 때 선배이자 친구인 학생들이 KCB에게 건네는 덕담을 들어보자.

KAIST 경영대학 20주년 기념 축하 보드



장하다, KCB!

“
우리 학교가
개원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어요?”

많은 학생이 KCB의 스무 번째 생일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20주년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다가 이렇게 학교로부터 20주년 기념 떡을 받고 축하 보드에 축하 메시지를 쓰니 이제서야 KCB가 스무살임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KCB와 함께 20년의 시간을, 혹은 그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온 교수진 및 직원들은 축하보드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난 20년을 회상했다. 95년 기술경영전공 과정으로 첫 걸음마를 내디뎠던 KCB는 어느새 10개가 넘는 다양한 MBA, Master, MS/Ph.D. 과정을 포함하고 유수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탄실한 청년이 되었다. 마음에 차오르는 큰 감개 속에서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들은 비록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진 못했지만 개개인의 다양한 축하 메시지로 KCB의 스무 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꿈꾸자, KCB!

“
이제
청년이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죠!”

스무살 KCB는 끊임없이 꿈꾼다. 비전선포식을 앞두고 구성원들은 이번 축하 메세지 이벤트에서 앞으로 KCB와 함께 꿈꿀 더 큰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 KCB는 현재까지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2년 전일제 MBA로 첫 걸음을 내딛은 이후 단 한 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끊임없이 국내/외 트렌드에 반응하며 새로운 과정을 만들고 기존의 과정을 발전 시켜왔다.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된 KCB에게 구성원들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더욱 선명한 색깔을 가지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미 세계적인 경영대학의 반열에 오른 KCB인 만큼, 자신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보다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정체성을 성립해 나갈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 주된 이야기였다. KCB의 스무 번째 생일 축하 보드 앞에서 구성원들은 KCB의 더 큰 꿈을 함께 지원해 줄 것을 다짐했다.

함께 걸자, KCB!

“
소통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졸업생과 재학생
사이의 네트워크도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고요.”

축하 보드에는 더 나은 KCB를 위한 조언들도 간간히 보였다. 건설한 성년의 나이가 된 만큼,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구성원들의 기대와 격려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지난 20년간 새로운 학과가 생기고 수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이전까지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프로그램과 학생, 동문들이 보다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KAIST 경영대학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할 시기라는 것이 구성원들의 생각이다. 더 멋진 KCB를 위해 졸업생과 교수 및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앞으로 더욱 소통하고 서로 도우며 손 잡고 함께 걷고 싶다는 구성원들의 마음이 축하 메시지 안에 담겼다. 생일에 백설기를 먹는 우리 나라의 문화에는 아이가 흰 백설기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KAIST 경영대학도 스무 번째 생일을 맞아 처음 개원했을 당시의 마음 그대로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고, 지식 그 이상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국내 경영대학원의 위기, 해외 경영대학원에서 길을 찾다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절대로 MBA 학위 소지자를 고용하지 말라. 그들이 회사를 망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MBA 강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업을 창조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혹평했다. 경영대학원의 위기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경영학이 태동한 미국에서 현재 경영대학원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을 살펴보고, 갓 스무 번째 생일을 넘긴 KAIST 경영대학의 미래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해외 경영대학원의
위기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세계 최초의 경영대학원은 1908년에 설립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다. 이후 경영대학원의 인기는 꾸준히 높아져 1950년대에서 2000년까지 황금기를 맞았다. 경영대학원의 MBA 과정을 졸업하면 컨설팅 회사나 투자은행에서 역대 연봉을 받고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는 성공적인 길을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커리어의 지름길로 여겨졌던 MBA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미국의 GMAT 응시자 수가 2010년 이후부터 계속 줄고 있다. 경영대학원 인기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원인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꼽힌다. 2013년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MBA 졸업생의 평균 연봉이 94,000달러로 5년 전보다 약 1,500달러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MBA의 등록금은 계속 올랐는데, 하나의 예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경우 5년 전 보다 약 25,000달러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MBA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General MBA의 인기 하락이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경영학을 선호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금융,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헬스케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2년제 Full-time MBA의 지원자는 줄어들고 1년 과정의 전문화된 MS 과정에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마지막 원인은 '개방형 온라인 강좌(MOOCs)'의 증가로 분석된다. 개방형 온라인 강좌란 온라인과 대학 강의를 접목함으로써 대학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모두 구현한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설한 코세라(Coursera)가 대표적인데 유명 강의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 방식의 등장으로 인해 MBA의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경영대학원의 위기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과정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이 2014년에 컴퓨터 공학 석사 과정과 MBA 과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Joint Degree Program을 신설한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기업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졸업 후 창업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학부 프로그램 코딩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에 착안하였다. 학생들은 경영대학원에서 1년, 공과대학원에서 1년을 보내며 경영학과 함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및 빅데이터(Big Data) 등을 공부한다. 다음으로

는 온라인 강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이다. 정통 MBA만을 고집하며 온라인 강좌 개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2014년에 2개월짜리 유료 온라인 강좌 HBX(하버드 비즈니스 X)를 개설해 온라인 강좌 대열에 합류했다. 다수의 경영대학원이 개방형 온라인 강좌의 증가로 인해 값비싼 교육 제도가 온라인 교육으로 급속히 대체되는 추세를 인식하고, 정통 MBA보다 조금 저렴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스무 살 청년이 된 KAST 경영대학은 지난 4월 8일 향후 발전 포부를 담아 '개원 20주년 비전선 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MBA 무용론과 같이 경영대학원의 존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 해외 경영대학원이 모색하고 있는 위기 대응 방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KAIST 경영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공학과 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융합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강좌 개설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KAIST 경영대학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진실

Q. KAIST에도 경영대학이 있나요? 대전에 있는 건가요?

네, KAIST에도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KAIST' 하면 과학, 기술과 같은 이공계 이미지로 인해 경영대학이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실 텐데요, 경영대학의 역사는 사실 수십 년 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갑니다. KAIST가 서울 홍릉캠퍼스에서 개원한 지 10년째 되던 1980년에 산업공학과 소속으로 새롭게 신설된 경영과학전공이 그 뿌리입니다. 이후, 경영과학전공은 산업경영학과로 발전했고, KAIST가 대전으로 옮긴 이후 홍릉 캠퍼스에는 경영정보공학과가 설치되었습니다. 1996년, 이곳 홍릉 캠퍼스에서 산업경영학과와 경영정보공학과를 통합한 테크노경영대학원이 학부급 조직으로 공식 출범하였고 2006년에는 단과대학인 경영대학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경영대학은 KAIST가 태어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홍릉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Q. 타 대학 경영학과에 비해 역사가 짧아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다른 종합대학에 비해 연혁이 짧은 것은 사실이나, KAIST 경영대학은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한 국의 경영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 MBA는 국내 최초의 2년 전일제 MBA로서, 국내 MBA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성 또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KAIST 경영대학은 AACSB, GMAC, EQUIS 등 경영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3개의 기관으로부터 공인 받았으며, 국내 최초로 세계경영교육 연합인 PIM 회원 학교로 가입하여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위 과정 6,400여 명, 고위경영자 과정 10,000여 명에 이르는 동문들이 국내외 유수 기업에서 핵심인재/임원으로 활약하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KAIST는 국내 최고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는 요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이공계 색채가 강하다 보니, 외부에 비친 KAIST 경영대학의 이미지도 다른 경영대학들과는 조금 다르다. 느낌상 학업에 수학을 많이 사용할 것 같고 공대생 출신이 많을 것 같다. 심지어 KAIST에 경영대학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궁금했지만 속 시원히 알 수 없었던 KAIST 경영대학에 대한 풀리지 않은 오해와 궁금증! 지금 해결해보자.



Q. 이공계와 관련된 전공만 있나요? 다른 경영대학보다 전공의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량적 분석 능력이나 이공계 지식을 요구하는 전공 외에도 다양한 전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영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와 방법론을 훈련하는 MBA, 경영현상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는 경영공학, 실제 경영 현상을 해결하면서 학문적 탐구도 병행하는 Master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공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폭이 더욱 넓습니다. 전통적인 경영학 세부전공은 물론이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금융, 사회적 기업, 녹색성장, 정보미디어 등 다양한 특화 전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의 다양성은 KAIST 경영대학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Q. 상경계 학생들이 입학에 유리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공학의 경우 지원자들의 상당수가 상경, 전산, 산업공학 등 관련 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입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으며,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도 충분히 입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MBA 과정은 학부 전공보다는 회사 직무 및 경력, 지원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지원자들의 전공 구성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문, 사회계열 출신 입학생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Q. KAIST 경영대학에 입학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하나요?

전공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전공의 경우 수학에 대한 지식이 많다면 향후 학습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MBA 과정은 수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영어 성적이나 경력 등으로 단점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입학해 수학하실 수 있습니다.

Q. 정말 공부량이 많나요? 동아리와 같은 모임도 있나요?

공부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취미, 여가 생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네트워킹도 하고 심신을 단련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AIST 경영대학에는 학술, 봉사, 스포츠, 음악, 창업 동아리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주년 KAIST 경영대학과 함께 봄을 맞는 16학번 신입생

1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6학번 신입생들은 KAIST 경영대학과 함께 20주년의 봄을 맞았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신입생 중 특히 흥미로운 이력을 바탕으로 KAIST 경영대학에서 꿈을 키우는 세 명의 학우들을 만났다.



중국 전문 전략가를 꿈꾸는, 테크노 MBA 황전원 학우

8년간 중국 해외영업 및 유럽, 동남아 등 21여 개국 수출입 업무 경력을 쌓은 황전원 학우는 향후 전략가로 성장하기 위한 커리어의 전환점으로 테크노 MBA를 택했다. 그는 엔지니어, 컨설팅 등 여러 업종의 동기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직무에 대해 알게 되어 향후 커리어 선택권이 더욱 넓어졌으며 특히 끈끈한 랩(연구실) 문화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KAIST 경영대학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강 시간에도 연구실에서 차분히 공부할 수 있고, 선배들에게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 대해 많은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황전원 학우는 특히, 재학 중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식견을 넓히고 싶다고 한다. 현재도 테크노 MBA 과대표, 전략 동아리 BSC에서 활동 중이며 추후 해외연수, 칭화대와 게이오대 MBA학 생들과 토론하는 CKJ 프로그램에 참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졸업 후에도 중국 해외영업 경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을 아우르는 교량 역할을 꿈꾼다. 그는 추후 중국 비즈니스에 관심있는 학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중국과 일할 때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고, 포용하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남은 학창 생활을 동기들과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는 황전원 학우는 20주년을 맞은 KAIST 경영대학에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6년 전부터 KAIST 경영대학 입학を 생각해 온 터라 지금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20년의 성공적인 역사처럼 지속해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갖춘 MCN 크리에이터, 정보미디어 MBA 김수진 학우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친숙하게 전달하는 새로운 광고 모델로, MCN(Multi Channel Networks) 크리에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김수진 학우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보스턴에서 UI디자이너로 약 1년 동안 일한 후, 유튜브와 바이앱에서 “Miss Daisy”로 활동하고 있다. 10~20대 여성을 타겟으로 뷰티 콘텐츠를 제작하며 모델 화보, 제품 영상, SNS 마케팅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품을 알리는 1인 광고 제작자로 시세이도 프로페셔널 등의 뷰티 브랜드와도 협업하고 있다.

김수진 학우는 MCN 크리에이터로서 IT와 미디어를 결합한 커리큘럼을 통해 비즈니스 마인드를 습득하기 위해 KAIST 경영대학에 진학했고 Business Analytics 분야에 특히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미디어 MBA는 타전공에 비해 인원이 적어 유대감이 깊습니다. 나이와 학부 전공이 다른 사람들과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교수님들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Business Analytics 관련 수업이 인상적입니다. 수업에서 배운 데이터 분석 기법을 크리에이터 활동에 접목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학우는 뷰티 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는 동남아, 중국에 K-뷰티 콘텐츠와 제품을 판매 중인데 앞으로는 개인 브랜드를 론칭하고 싶다고 한다.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신뢰감을 주는 뷰티와 멘토링 콘텐츠를 통해 개인 브랜드를 강화하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뷰티, 패션, 웰빙까지 아우르는 브랜드를 론칭하는 게 꿈입니다.” 김수진 학우는 “20주년을 맞은 KAIST 경영대학이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현재의 트렌드와도 균형을 맞춰 새롭게 도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두가 한국 문화를 즐기고 배우게 하는 한국문화기획관, 사회적기업가 MBA 문현우 학우

문현우 학우는 “한국문화기획관”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일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한국문화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해결하고, 관련 전공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문화체험 아카데미인 “아리랑 스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쌓고 싶었고, 경영학적 측면을 강화해 본인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 MBA에 진학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공유하며 구성원들과 동반 성장하는 중입니다. 특히, 한달 만에 비전과 미션을 수립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출신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국문화를 즐기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또한 20세의 대학교 신입생 시절처럼 나이, 분야와 상관없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KAIST 경영대학 입학의 좋은 점으로 꼽았다. 특히 동기들과 조언을 주고 받으며 변화를 이끌어 내서 시너지를 얻고 자극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사회적기업가 MBA 동기들은 슈퍼히어로 같습니다. 각자 특성이 명확하고, 개인의 고민거리와 차별화된 해결책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문현우 학우는 KAIST 경영대학을 통해 10~2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미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얻어 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확고한 철학과 가치관을 탄탄하게 다져서, 아무리 ‘WHY’라고 물어도 흔들리지 않고 답변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고 싶다고 한다. 또한 20주년을 맞은 KAIST 경영대학과 구성원들에게 ‘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독특한 소망을 밝혔다. “저는 KAIST 경영대학이라는 장독대 안에서 우리가 모두 알차고 맛깔나게 발효되는 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발효 촉매제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5 KAIST 개발도상국 금융 콘퍼런스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성공 사례를 전파하다



KAIST 경영대학에서는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을 종종 마주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바로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금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 MBA 재학생들이다. KAIST 금융 MBA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졸업생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금융정책을 소개하며 자국의 금융시장과 경제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에 개최된 '2015 KAIST 개발도상국 금융 콘퍼런스'에서는 금융전문대학원 출신 외국인 졸업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국에서의 현업적용 및 지식공유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전문대학원은 콘퍼런스에 앞서 외국인 동문을 대상으로 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1~2위 수상자를 이번 콘퍼런스에 초청하였다. 우수 외국인 동문이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재학생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콘퍼런스는 서재홍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관의 '한국의 금융개혁'에 대한 특별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한국의 금융시스템 변화와 더불어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건전성이 높으면서도 역동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 대해 참가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의 금융정책과 위기 대응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우수 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먼저 최우수상 수상자인 필리핀의 Geraldine Pama 동문(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이 재학 당시 마지막 학기에 수행했던 '주식시장 규제에 관한 미국-필리핀 비교'를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자국에 돌아가 현업에 적용하고 활용한 경험을 발표했다. 그는 소속 기관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큰 반응을 이끌어 내었고 이와 관련한 후속 토론회가 이어졌으며 나아가 필리핀을 대표하여 해외 세미나에도 참가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가졌다고 말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Nurbek Darvisheve 동문(우즈베키스탄 개발기금 책임투자 담당)은 공공투자 관리시스템 도입 제안서 제출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금융 MBA 재학 중 한국의 국가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 전략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자국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 평가시스템 및 관리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공공 투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하게 되었다. 그는 금융 분야 외에도 E-Government 등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례들을 소개하며 양국 간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재학생 Maingu Emilia(탄자니아 대통령실 감사)는 "IMF가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개혁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한국의 금융개혁은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고 운영이나 시스템 측면에서도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탄자니아 등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은행산업은 건전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산업으로 변모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우수사례 공모전이나 이번 콘퍼런스와 같은 일련의 행사들이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의미가 크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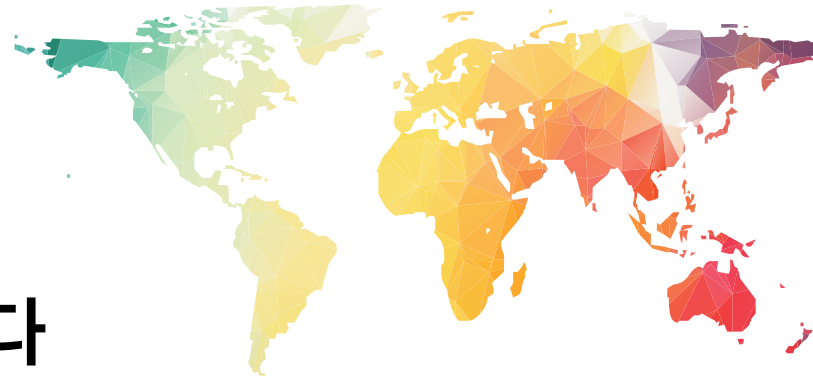
금융전문대학원 외국인 졸업생 규모는 현재 68명으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26개국에 분포되어 있다. 이번 콘퍼런스와 같은 졸업생 역량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현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자국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의 금융과 KAIST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KAIST

Conference on Emerging Financial Markets



KAIST 경영대학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개원 20주년을 맞은 KAIST 경영대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태국 등 세계 곳곳의 협력 대학과 기관에서 축하 편지와 영상을 보내왔다. 오늘날의 KAIST 경영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 20년이라는 역사적 발자취 속에서 각별한 인연을 맺은 기관들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축하와 격려의 내용이 담긴 여러 메시지들을 통하여 KAIST 경영대학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를 돌아보고, 동시에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우수 기관들의 응원 메시지에 힘입어, 앞으로도 KAIST 경영대학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AACSB

(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s one of the first few institutions to earn AACSB accreditation in South Korea, KAIST has continued to forge new ground as a leader in the business education sphere, regionally and globally. (.....) KAIST's established legacy is one that should make its faculty, staff, students, alumni, and the community proud. This legacy is a true embodiment of the institution's mission to develop both a current and next generation of insightful, talented, and effective leaders. (.....) Please accept our congratulations and admiration for KAIST College of Business' efforts and contributions to management education's pursuit of excellence, and our sincerest wishes for you continued success."

Thomas R. Robinson,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AAPBS (Association of Asia-Pacific Business Schools)

"It is my honor to congratulate you on the 20th anniversary of KAIST. It is never easy to run a business school; nevertheless you have achieved tremendous growth and have built eminent goodwill for business education in Korea. Furthermore, KAIST has become a renowned global business

school for developing and nurturing not only academic scholars but also industry leaders. (.....) One can never imagine the amount of energy and efforts contributed behind this accomplishment, and we are delighted to have you as a co-founder and longtime partner in our league."

Ruey-Shan Andy Guo, President



Chulalongkorn University,

Sasin Graduate Institut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ailand

"I should like to warmly congratulate KAIST College of Business on its 20th anniversary. During the past 20 years, KAIST College of Business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top business schools not only in Asia but in the world. This can be proved through all the rankings and accreditations that KCB was able to achieve during the last 20 years. (.....) Internationally, KCB has been well-recognized as the leader in integrating technology with management and has been able to create a new breed of leaders not only for Korea but for the world. It can be said that KCB has been a pioneer in business education in Asia for the past 20 years and will be for the future."

Pasu Decharin, Dean

EFMD (European Foundation for Management Development), Belgium

"It is my great pleasure and honor, on behalf of EFMD and its international network, to warmly congratulate KAIST College of Business on its 20th Anniversary. I am proud to say that KAIST has been an active and engaged member of the EFMD network for the past six years and in 2010, the School gained EQUIS accreditation. (.....) KAIST was one of the first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s in South Korea an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t has confirmed its leadership in the country and has become one of the top business schools in Asia."

Prof. Eric Cornuel, Director General & CEO



Fisher College of Business, USA

"I want to wish you the heartiest congratulations on your 20th anniversary. It has been our good fortune over the last decade or perhaps longer to partner with KAIST College of Business. And during this period, we have seen your college rise in rank and prominence. (.....) Indeed, KCB was the first to offer a full time MBA program in Korea, and that the Executive Education Program has gone on to be ranked as the best in Asia and top 20 in the world, according to Financial Times. This is just one example of the achievements of the KAIST College of Business. (.....) Knowing the talents and the hard work of the faculty, staff, students, and administration, I can only imagine the great heights to which this college will go in the future. We excitedly look forward to that prospect."

Anil K. Makhija, Dean



GMAC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 USA

"On behalf of the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 I congratulate you on your school's milestone anniversary and 20 years of committed services. During this time, KAIST College of Business has grown to become a driving force for fostering successful global business leaders. (.....) Your top-ranked business school commendably delivers world-class quality graduate management education. GMAC has enjoyed working closely with KCB to connect talent and aspiration with opportunity."

Sangeet Chowfla, President and CEO



Keio Business School, Japan

"Congratulations on your 20th anniversary. I wish you growth and success in the coming decade, hoping to enrich our ties and collaboration, both in research and education, for the future of both countries, for the whole Asia, and for the globe."

Hirokazo Kono, Dean



PIM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Management)

"On behalf of the entire PIM network, we would like to extend our heartiest congratulations to KAIST College of Business on its 20th anniversary. (.....) We value you as a member of our community and appreciate the times we have connected with each other. We are proud of your tremendous achieved growth for the university, and offer the best wishes for the continuing success of KCB. (.....) KCB was ranked the best university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achievements did not stop there. The university was ranked top ten as one of the most innovative institutions in the world. With this KCB is truly imprinting its academic identity on global footmarks."

PIM Chairs

Claire Ramsay, Chair of Asia and Asia Pacific

Dr. Murali Chandrashekar, Chair of the Americas Region

Christoph Sonnenschein, Chair of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Tsinghua University,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China

"On behalf of Tsinghua University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I convey my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to you on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your school. (.....) We particularly sincerely appreciate KAIST for the full support and genuine help it provided to Tsinghua SEM during you pursuit of AACSB accreditation ten years ago. (.....) We trust that the twentieth anniversary is not only a milestone, but also a new starting point for KAIST College of Business. With 20 years of wisdom and experiences, KAIST will continue to advance and make an even greater impact in management education. We look forward to continuous and close cooperation between Tsinghua SEM and KAIST College of Business in the future."

Yingyi Qian, Dean and Professor

Global Family in KCB, 국제학생들을 위한 오픈 하우스 추석/성탄절 파티



거실 한 가운데 옷판이 펼쳐지고 옷이 던져졌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네 개의 말 중 어떤 것을 어디로 옮길지 고민했다. 제기를 차는 서툰 모습에 터져 나온 웃음 소리가 부엌을 채웠고, 송편을 입안 가득 물고 치약과 비누상자로 건물을 짓는 세 살배기 아이의 진중함에 어른들의 따뜻한 시선이 머물렀다. 옷판에 모여 있던 무리로부터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Professor! Your turn! (교수님, 교수님 차례예요!)”

1년 중 캠퍼스가 가장 허전할 때가 언제일까? 새해 달력을 받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빨간 날 삼일 민족 대이동의 시작과 함께 캠퍼스와 기숙사를 채우던 이들을 떠나 보내는 명절 연휴 기간이 되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열정의 상징인 KAIST 경영대학에도 고요함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애달픈 이들이 있다. 바로 자국과 가족을 떠난 유학생, 국제학생들이다.

식당도, 도서관도 열리지 않는 추석 연휴와 연말연시(성탄절) 기간, 혹시라도 캠퍼스에 남아 외로움을 느낄 국제학생들을 위해 박광우 교수와 이재원 교수는 오픈 하우스 파티(Open House Party)를 수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교수 사택으로 학생들을 초대해 국제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주고자 한 것이다. 추석파티(Korean Thanksgiving Party)는 이재원 교수 사택에서, 성탄절 파티는 박광우 교수 사택에서 개최되었고, 마음을 같이 하는 한국인 학생 몇 명과 주변 지인들을 포함하여 각 20명에 다다른 손님들 받았다.



Interview

“진정한 한국의 문화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보통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 이곳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잖아요. 모두가 함께해서 즐거웠고 음식을 나누며 놀이도 했지요. 저는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 Bewaji Phebian Nwakaego from Nigeria(금융 MBA '15)

추석파티에서의 문화교류



“KAIST에 교환학생으로 처음 왔을 때 한편으로는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사무치게 그리웠고, 외로웠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이 가족들과의 행복한 추억이 그려지는 날이 되면 더욱 가족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전혀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제 가족이었습니다.” — Asante Kwesi from Ghana(금융 MBA '14)



크리스마스파티



파티에 참가한 학생들은 박광우 교수와 이재원 교수가 준비한 한국의 명절 음식과 가정식으로 먼저 식사를 하고 윷놀이, 제기차기, 레크리에이션 게임, 선물 교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특별 행사에 참가했다. 일부 학생들은 자국의 음식과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오고, 마침 한국에 놀러 온 자신의 친구를 초대하여 친구가 가져온 자국의 기념품을 파티 참가자들에게 선물했다.

박광우 교수는 “20여 년 전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도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이 되면 외로운 외국인 유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던 교수님이 계셨다”라며, “그때 당시 느꼈던 감동을 우리 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파티에 참가한 학생들은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더불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2월 학위 과정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던 라미아(Lamia) 씨는 이제는 교수님들께서 모로코를 방문하실 차례이고, 유럽으로 오실 일이 있으면 필히 모로코를 경유해 주시라고 말하며, 꼭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KAIST 경영대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여러 유학생과 교환학생들이 KAIST 경영대학에서 한국의 캠퍼스 라이프를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 학생들이 오픈 하우스 파티를 비롯한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통해 학업의 지식뿐만 아니라 행복한 추억을 그들의 마음 속에 담아 가고, 한국 특유의 따뜻한 ‘정’ 문화를 이곳 KAIST 경영대학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 생애 첫 크리스마스 파티였어요. 우리나라는 이슬람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거든요. 물론 주변에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아주 소수 있어서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만요, 저로서는 크리스마스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정말 큰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Haissoubi Lamia from Morocco(금융 MBA '14)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 김진회 학우를 만나다

비디오팩토리 대표 김진회 학우(정보경영 석사과정 '14)

‘물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할 텐데...’
IT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김진회 학우를 만나 그의 넘치는 열정과 새로운 도약,
그리고 KAIST 경영대학에서 얻은 소중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자기소개 및 회사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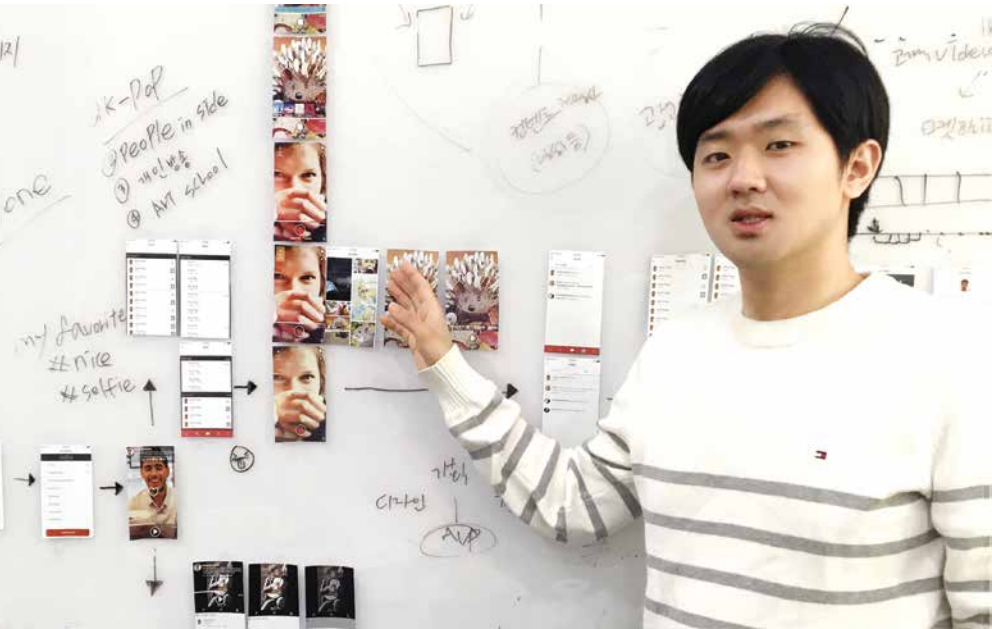
저는 정보경영 석사과정(IMMS) 14학번이고, 비디오팩토리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몽골과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IT를 활용하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상 자동제작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세로로 세워서 촬영한 동영상상을 담을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인 '세로(SERO)'라는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Q. 정보경영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어떤 것들을 얻으셨나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석사과정에 입학하면서 두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적 지식을 쌓음과 동시에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성장 이었고, 두 번째는 동기, 선후배들과의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얻은 것 같습니다. 수준 높은 수업, 그리고 교수님들의 열정적이고 애정 어린 강의를 통해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업에서 핵심 인재로 활동하고 있는 동기 및 선후배와의 교류 속에서 즐거움뿐 아니라 많은 유익함을 얻고 있습니다.

Q. 정보경영 노현준 학우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신데,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었나요?

노현준 학우는 대학원에서 가장 친한 형 중 한 명입니다. SBS에서 폭(pooq)과 고릴라 라디오 개발 멤버였던 아주 능력 있는 개발자이죠. 사실 저는 먼저 창업을 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바일 쪽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싶어서 능력 있는 CTO를 찾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KAIST 경영대학에 입학하여 노현준 학우를 만났고 서로 마음과 뜻이 맞아서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회사 CTO로 회사를 아주 잘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Q. 학업과 현업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학업과 현업을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고 아이템을 개발한 건 1년 정도밖에 안 되어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도 KAIST 경영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다양한 영감도 많이 얻었고 선배, 동기들에게 여러 정보와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함께 일할 뛰어난 CTO도 만났으니 얻은 것이 더욱 큼니다. 시간도 없고 몸도 피로하지만, 그만큼 충분히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Q. 미국 실리콘밸리로 진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시게 되었나요?

KAIST 경영대학의 모든 수업에서 교수님들은 상당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IT기술의 흐름,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글로벌'과 '혁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을 수학하는 중에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도 받고, 현재는 미국 시장에 트라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름에 갔던 미국 연수(실리콘밸리 등)도 미국 진출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게 미국 시장 진출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적어도 구성원들의 역량을 여러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Q. 사회로 나아갈 후배들과 동문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아직 조언을 해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저 역시도 제 삶을 아직까지 실험 중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한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면 후회하지 말고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고민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두려워 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 후에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가면 됩니다.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면 평생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단 한 번 시도해 보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즐겁게 기업을 경영하는 김진기 동문을 만나다

AK 아이에스 대표이사 김진기 동문(AIC 6기, EMBA 2기)

일반 신입사원에서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AK 그룹에서의 풍부한 경험으로 현재 AK 아이에스 기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김진기 대표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간단한 본인 소개와 AK 아이에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989년 애경산업에 입사하여 여러 직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재경 부문 업무를 시작으로, 2006년 제주항공 창립 시기에 임원 발령을 받고 경영관리를 맡아 초창기 조직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그후 2년 동안은 영업 총괄을 맡은 뒤 2009년부터 7년 동안 AK 아이에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K 아이에스는 AEKYUNG Innovation Service의 약자로 주로 Information 분야의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컨설팅이나 교육 관련 제반 사업도 진행하며, 앞으로는 Innovation에 걸맞은 기획 분야를 강화하고, 그 외 IT 관련 비즈니스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Q. KAIST 경영대학에서 AIC, EMBA 두 과정을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과정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사 재직 당시, 내부컨설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AIC 과정을 선택하였고, 애경 그룹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입과하였습니다.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본사 동료들에게 전파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과정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당시에는 AIC 과정명이 '최고컨설턴트과정'이었는데, 과정을 통해 전략, 마케팅, IT, 인사 등 각 부문별 현업 컨설턴트 강사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고, KAIST 경영대학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해외 기업들의 여러 성공 사례들과 학문적인 이론들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EMBA 과정은 AIC 과정 이후 학업의 연장 선상에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의 EMBA는 타 대학에 비해 커리큘럼이 현업과의 관련성이 높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부분을 이론적인 부분과 융합시켜 현업에서의 성과로 이어지게 해주는 AIC, EMBA 같은 프로그램이 바로 KAIST 경영대학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동문이시기도 하지만 AIC 과정에 꾸준히 인재를 파견해주시고 계신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창기에는 기획 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주로 파견하였습니다. 경영지원이나 경영관리 분야의 인재는, 한 분야의 전문성 보다는 회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회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지 기획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각 부문을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룹에서 IT를 담당하면서 더욱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AK 아이에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T 테크놀로지 영역에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의 영역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능력과 더불어 임직원들이 그룹 성장에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AIC 과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동문님이 가지고 계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 집안의 가장 그리고 개인의 위치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인된 입장으로 그룹의 한 계열사를 맡아 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 IT에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해 일익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 중에 '무슨 일을 도모하기 앞서서는 체력부터 키워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체력을 키울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개인의 다양한 역할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때, 행복은 함께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Q. KAIST 경영대학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치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HR에서 자주하는 이야기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동기 부여에 있어 그 중심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재미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힘든 과정도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밤잠을 설치가면서도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개개인은 삶을 살아가는 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 이러한 것을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했으면 합니다. 공부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틀을 깨는 사고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지금까지의 KAIST 경영대학은 타 대학 대비 차별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해서 KAIST 경영대학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성장대학원 학생 연구 발표회, 성황리에 열린다

2015 KAIST 경영대학 제2회 녹색성장대학원 학생 연구 발표회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다. 이날 67명의 녹색경영정책 프로그램 및 녹색경영 학생들은 1~2년 간 진행한 녹색 연구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2014년도 녹색경영정책 프로그램 입학생들의 결실인 학위 논문 심사가 이루어졌다. 심사를 받은 강태권 학우(녹색경영정책 프로그램)는 “연구했던 논문을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2년 동안 ‘Supply chain environmental risks’라는 주제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이재원 지도 교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사전에 우수연구자로 선정된 강신영 학우(경영공학)의 발표가 이어졌다. ‘Message framing in green advertising’이라는 주제의 연구는 중추 신경계의 교감·부교감 반응을 바탕으로 소비자 반응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라는 평가를 받았다. 강신영 학우는 “교수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향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67명의 연구자들의 포스터 세션이 진행되었다. ‘지자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분석 및 진단 방안 연구’ 등 녹색정책·기술에 관련된 연구, ‘Green funds are no more than green’ 등 녹색금융과 관련된 연구와 ‘친환경 기업이 정말 친환경 기업일까?’와 같은 녹색경영 연구 등 다방면의 녹색연구가 발표되었다. 참가자들은 관심 있는 연구의 포스터 앞에 서서 연구자의 설명을 들으며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서로의 연구에 대해 추가로 무엇을 보완하면 되는지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연구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장려상은 강태권, 이수빈, 최민지, 장정훈, 김보성 학우가 수상했고, 우수상은 김지나, 조성훈, 김재윤, 유소영 학우가 수상했다. 박광우 교수는 “수상자와 비수상자의 연구 수준에는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모든 연구가 우수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영걸 대외부학장은 “녹색성장대학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적과 같은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발표회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최동현 학우(녹색경영정책)는 “여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우들을 보면서 안목도 넓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나 자신의 연구 주제와 녹색분야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색다른 방식으로 정밀하게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이끌 KCB 동문들, 힘차게 도약하라

2016 학위수여식

개원 20주년을 맞은 KAIST 경영대학의 2016년 학위수여식이 2월 20일 1호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교수진들과 KCB 구성원들은 아낌없는 축하와 덕담을 248명의 졸업생들에게 전하였다. 새로운 사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KCB 동문들의 힘찬 도약을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2016년 2월 20일, 1호관 대강당에서 2016년 KAIST 경영대학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올해로서 20주년을 맞이하며 경영학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KAIST 경영대학은 2016년 248명의 졸업생을 포함하여 총 6,400여 명의 동문들을 배출하며 폭넓은 동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행사는 경영대학 교수 및 외빈·교수 행렬 입장을 시작으로, 학장 식사 및 교수 축사가 이어졌다. 김동석 학장은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자신의 자리에서 성장하는 것이 제일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이재규 석좌교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되고,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조언과 함께 “늘 감사할 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면 행운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덕담을 전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최우등 졸업생(학과별 각 1명), 리더십상 17명, 우수논문상 6명, 최우수 프로젝트상 6개 팀(총 12명)의 시상이 있었다.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교수들의 훌륭한 지도가 함께 일궈낸 결과인 만큼 이를 축하하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KAIST 경영대학의 학위수여 방식에 따라, 모든 졸업생들이 교수진과 악수를 나누며 축하의 인사들이 오갔다. 학생들에 대한 교수들의 진심 어린 애정, 그리고 교수님들을 향한 졸업생들의 존경의 마음이 통하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허필석 동문대표(마이다스세셋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선배로서의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전했다. 또한 오창화 학생회장은 스티브 잡스와 배우 로버트 드 니로의 졸업축사를 인용하여 앞으로 사회에서 마주칠 수 많은 거절들에 의연히 대처하고, KAIST 경영대학이라는 지금의 점들이 모여 미래에 연결되는 날에 기쁘게 만나자는 말을 남기며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보경영석사(MMS) 2기 이현정 졸업생은 “학교에서 훌륭한 동기들을 많이 만나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앞으로 졸업 후에도 더 많은 교류를 기대한다”는 졸업 소감을 남겼고, 녹색경영정책 2기 이수빈 졸업생은 “녹색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KAIST 경영대학 녹색경영정책 프로그램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훌륭한 교수님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함께 공부한 선배, 동기, 후배들과의 소중한 인연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녹색인으로서 자리를 지키며 성장하길 고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간의 학교 생활을 마무리 짓는 학위수여식이지만, 이는 동시에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과 같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KAIST 경영대학의 학위수여식인 만큼 더욱 의미 있는 날이었다. 이제 막 동문이 된, 졸업생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의 인사와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길 바라며, KAIST 경영대학의 졸업이 그들에게 또 다른 힘찬 도약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학생들에 대한
교수진들의 진심 어린
애정, 그리고 교수님들을
향한 졸업생들의 존경의
마음이 통하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금융의 Next Generation을 선도한다

금융애널리틱스 심화과정

지난 3월 구글 Deepmind사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 개최되었다. 이번에 성사된 세기의 대결은 우리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이를 위한 컴퓨팅 자원과 분석 알고리즘이 필수 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가 인지해야 할 시점이다.

전통적으로 데이터가 중요했던 금융 분야는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정보화 시대에 금융 산업은 빅데이터 활용 및 다양한 채널의 정보 관리와 분석 및 응용이 매우 중요해졌고, 전 세계 금융 업계의 Big 이슈 중에 하나인 핀테크(FinTech)는 관련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일찍이 간파한 KAIST 경영대학은 장기적 관점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은 트렌드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임을 인식하고, 'IT 지식이 강한 금융인'을 배출하기 위해 IT·금융 융합형 특화 교육 과정인 금융애널리틱스(Financial Analytics) 심화과정을 개설하였다.

KAIST 경영대학이 준비해 온 금융애널리틱스 심화과정은 기존의 금융공학 석사과정 내에 심화과정(12학점)을 개설하는 형태로 2016년 9월 개강을 목표로 첫 입학생을 모집한다. 금융공학은 수리적 지식, 통계 및 계량경제학 지식, 전산 및 프로그래밍 지식 등을 바탕으로 금융현상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 분야로, 현재의 금융공학 과정은 이 가운데 수리적 지식과 통계 및 계량경제학 지식에 특화되어 있다. KAIST 경영대학은 이러한 강점에 더해 IT분야의 독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KAIST 본원의 전산학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융-IT 융합 및 정보분석 신규 과목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전산 및 프로그래밍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KAIST 상호협력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본 과정은 본원의 전산학과 교수진이 IT컴퓨팅 교육을 담당하고, 금융전문대학원에서 Finance 과목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될 계획으로 IT·금융 융합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애널리틱스 심화과정은 2년간 논문지도를 포함하여 총 5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년차에는 기본적인 IT 교육과 Business Analytics 기초 교육이 진행되는데, 첫 학기에는 기존의 금융공학 커리큘럼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Algorithm(R과 Python 활용)을 배우는 금융공학 프로그래밍, Database와 Numerical Analysis를 배우는 전산금융, Machine Learning을 금융에 적용하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등을 깊이 있게 배운다. 2학기에는 Business Analytics와 관련된 여러 과목들을 Business Analytics 분야에서 인지도와 명성을 보유한 해외 명문대학에서 수학할 기회를 갖게 된다. 첫 학기가 프로그래밍 실력을 쌓는 과정이었다면, 두 번째 학기는 이를 응용할 여러 Analytics를 체득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2년차는 핀테크, 금융보안 설계, 횡단면 금융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와 금융자료 분석,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위험 분석, 운영리스크 관리 등 본 과정에 특화된 Finance 응용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2년차 2학기에는 그간의 융합된 교육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게 된다.

본 과정은 금융 산업 내 성장잠재력이 큰 Data Analytics, Capital Market 부문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견줄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 금융공학 석사과정에서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분석 등 전산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자산운용 및 위험

관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로써 금융 전문가로의 성장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효능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AIST 금융공학 석사과정은 금융 계량분석(Quant)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전공으로서 금융 실무지식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해왔다. 계량적 기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는 금융 실무지식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해 온 KAIST 경영대학은 금융분석 및 정보 특화 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으로, 강장구 KAIST 금융전문대학원장은 "금융애널리틱스 심화과정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 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데이터 중심의 시대에도 금융의 Next Generation을 선도할 KAIST 경영대학의 새로운 발걸음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개설형태	금융공학프로그램 내 '금융애널리틱스 심화과정'으로 설치
수여학위	경영학석사 (MS in Financial Engineering) 심화과정 이수증 발급
수업형태	2년 전일제 교육
학생	초기 10명 내외 목표로 점차 확대
이수학점	총 54학점 중 12학점 이상 관련 심화과목 이수
특징	금융-IT융합교육, 1학기 해외연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과 브랜드 고고학, 그리고 새로운 도약

유명 가수들의 해외 순회공연이야 너무 흔한 이야기지만, 고별 순회공연이라면 그 무게가 남다르다. 오랜 시간 쇠락의 길을 걷다가 극적으로 부활에 성공하고 곧 전설로 남게 될 이들의 노래라면 한 번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 여정 “Adóis Tour”의 끝자락에 이른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Buena Vista Social Club)¹⁾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명성과 쇠락, 그리고 재도약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은 1940년대를 전후로 쿠바의 수도 아바나(Havana)에서 명성을 날리던 사교 클럽이다. 당시 아바나 사람들은 손(Son)과 같은 쿠바 음악의 전성기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을 대표하던 음악가들이 즐겨 공연했던 장소가 바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다.

그러나 그 명성도 잠시뿐, 1959년 시작된 쿠바 혁명을 통해 정국을 장악한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주의 정권이 아바나 시민들의 향락적인 문화생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이전까지의 문화는 곧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쿠바의 전통 음악이 대중들로부터 잊혀지는 데에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바나의 클럽들을 누비던 음악가들은 대부분 음악가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발레 교습소의 피아노 연주자로 살아가거나 공장 노동자, 구두닦이 등 생계유지를 위한 새로운 직업을 찾아 떠났다. 과거의 명성을 뒤로한 채 ‘쿠바의 음악’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1989년 구소련의 붕괴로 쿠바를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쿠바는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관광 산업의 중흥을 염두에 둔 시장 개방화 정책을 실시한다. 이러한 변화의 틈바구니에서 영국에 기반을 둔 월드뮤직 전문 음반사 월드 서킷 레코드(World Circuit Records)의 프로듀서 닉 골드(Nick Gold)는 이전부터 쿠바 음악에 관심

이 많았던 기타리스트 라이 쿠더(Ry Cooder)에게 쿠바와 아프리카의 음악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앨범 제작을 제의한다. 이를 좋은 기회로 생각한 라이 쿠더는 아바나로 바로 떠나 말리의 음악가들을 쿠바로 초청하지만 그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쿠바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어쩔 수 없이 쿠바의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쿠바 전통 음악을 주제로 하는 앨범을 제작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당시 또 다른 쿠바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후안 곤잘레스(Juan González)와 새로운 팀을 이룬다. 이들은 아바나를 중심으로 쿠바 전역을 돌아다니며 함께 앨범 작업에 참여할 노장 음악가들을 섭외하고, 1996년 아바나 시내의 한 허름한 스튜디오에서 2주간 녹음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이들이 함께 작업한 3개의 앨범 중 하나가 바로 〈Buena Vista Social Club〉이다.

이 앨범은 1997년 여름 발매 이후 입소문의 힘만으로 전 세계적인 쿠바 음악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해 그래미 어워드(베스트 트로피컬 라틴 퍼포먼스 부문)를 수상한 것은 물론 월드뮤직 장르로는 기념비적인 80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다른 이들은 은퇴 이후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 시점에 화려하게 복귀에 성공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멤버들은 런던, 암스테르담에서의 공연을 거쳐 전 세계 음악가들의 꿈의 무대인 미국 카네기 홀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당시 주력 멤버들 일부가 80, 90대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감동의 수준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 3월 12일, 홍콩 아츠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투어 공연이 진행된 홍콩 아트 센터의 모습.

1999년 빔 벤더스(Wim Wenders)가 연출하여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된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카네기 홀 공연의 실황이다.

이후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이름 하에 크고 작은 공연들과 투어가 계속되었고 주요 멤버들의 솔로 앨범도 큰 성공을 거두면서 쿠바 음악은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확실히 각인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성장한 쿠바의 관광 산업은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과 쿠바 음악의 인기로 큰 이익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은 또 정작하게 흘러 원년 멤버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는 3명의 원년 멤버와 새로이 수혈된 쿠바의 실력파 음악가들로 구성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마지막 순회공연을 진행 중이다. 남아있는 원년 멤버들도 언젠가는 자리를 비우겠지만, 이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과 쿠바 음악의 새로운 영광은 인류의 노래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과 “브랜드 고고학”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쇠락의 끝자락에서 부활하여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 간 과정은 땅속에 파묻혀 있던 역사적 브랜드를 발굴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매력적인 스토리로 엮어내는 “브랜드 고고학”의 대표 사례로 부를 만하다. 닉 골드, 라이 쿠더, 그리고 후안 곤잘레스는 시간 속에 묻혀있던 쿠바의 음악가들을 발굴해 그들의 음악을 새로운 스토리, 또 새로운 브랜드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정신적 리더 콤파이 세군도(Compay Segundo)는 쿠바 혁명 이후, 담배 공장에서 오랜 시간 노동자로 일했으며 이후 낮에는 이발사로 밤에는 음악가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또 가난으로 본인의 피아노를 가질 수 없었던 천재 피아니스트 우벤 곤잘레스(Uben Gonzalez), 구두닦이와 복권 판매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쿠바의 ‘넷 킹 콜’ 이브라힘 페레르(Ibrahim Ferrer) 등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멤버들의 고단했던 삶은 그들의 뛰어난 실력에 깊이를 더해 주었다. 또 그들 모두의 삶과 음악이 교차하는 무대를 통해 많은 이들이 큰 감동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브랜드 고고학의 시작, 몰스킨(Moleskine)



브랜드 고고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수첩 몰스킨의 성공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알려진 개념이다.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문구 공방에서 만들던 검은색 수첩의 통칭이었던 몰스킨은 예술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고흐는 여러 권의 몰스킨에 자신의 스케치를 남겼고 헤밍웨이도 자신의 작품을 몰스킨에 쓴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자가 수첩의 등장과 컴퓨

터의 등장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공방들은 문을 닫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여기에 또 다른 영웅들이 등장한다. 몰스킨의 매혹적인 스토리를 접한 두 명의 이탈리아 사업가들은 고흐, 헤밍웨이 같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몰스킨의 역사적 사실(The Legendary Notebook)을 발굴하고 여기에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책(Unwritten Book)”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더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이후 몰스킨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고 다른 수첩 제품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새로운 스토리와 브랜드로 재창조된 몰스킨을 세상에 소개한 때는 바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앨범이 출시된 1997년이다²⁾.

어묵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부산 삼진어묵



한국에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스토리와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 부산 삼진어묵이 그 주인공. 6·25 전쟁통에 부산 영도구 봉래동 시장에 처음 문을 연 삼진어묵은 서민들의 먹거리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먹거리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어묵은 점차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유행 중이던 창업주의 손자가 기업에 뛰어들면서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온 어묵의 고유한 가치와 스토리는 보존하되 이를 기반으로 어묵 사업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 넣어야만 했다.

어묵의 차별화를 위한 끊임없는 실험의 결과물인

‘어묵 크로켓’과 고급 빵집 콘셉트의 ‘어묵 베이커리’는 어묵 사업의 처음과 끝을 새롭게 정의한 작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³⁾. 전국 최초의 어묵역사관 설립은 고유한 가치와 스토리를 발굴하고 지켜내겠다는 삼진어묵의 의지를 보여준다. 부산에서 시작된 삼진어묵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서울 유명 백화점의 매장 개점 제안을 거절했다는 에피소드에서는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어느 소설의 제목처럼 잊혀진다는 것은 서러운 일이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위대한 첫 성공을 거두고 인기를 누리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이내 사그라들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게 된다. 위기는 어떤 모양으로든 오기 마련이다. 쿠바의 전통 음악, 수첩, 그리고 어묵은 각자의 이유로 잊혀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위기 상황에 마주했다. 누군가는 이미 잊혀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앞으로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잊혀지는 기업은 있으나 잊혀지는 산업은 없는 법이다. 누군가는 살아남기 마련이고, 또 살아남아야만 한다. 첫 성공의 역사와 이야기 위에 바로 서는 것이 첫 단계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고 곧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 기반 위에 새로운 이야기와 가치를 더하는 것이 또 다른 핵심이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쿠바 전역을 돌며 새로운 음악가들의 조합을 이끌어 냈듯이, 몰스킨이 새로운 콘셉트를 더해 창조적 계층을 포섭했듯이, 삼진어묵이 산업의 처음과 끝을 재정의했듯이 새로운 변화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KAIST 경영대학을 포함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든 기업이 역사와 변화의 스토리로 단단히 무장하기를 응원한다.

1.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은 ‘환영받는 사교클럽’이라는 뜻으로 공식 영문 명칭은 Orquesta Buena Vista Social Club이다. 고별 투어 이후에도 다양한 구성과 형태의 프로젝트로 앨범을 제작하고 공연을 지속할 계획이다.
2. 몰스킨은 2013년 이탈리아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4년 기준) 연 매출 98M 유로, 순이익 19M 유로(순이익률 20%)의 규모로 성장했다.
3. 어묵 크로켓의 하루 평균 판매량은 3만 개 수준이며 서울 유명 백화점 식품관에서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매장을 열었을 때 하루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삼진어묵의 연 매출은 지난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하여 약 500억 원 규모(15년 기준)이다.

산악 동아리 소개

우리나라만큼 등산을 좋아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크지 않은 땅덩어리에 아름다운 산들이 즐비해 있으니 그 기쁨을 만끽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지도 모르겠다. 올해 공식 동아리로 출범한 산악 동아리 회장 최민성(PMBA 3기) 학우를 만나 그들의 즐거운 산행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Q. 간단한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악 동아리는 2015년에 입학한 PMBA 3기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입학 후에 일과 가정, 학업에 어떻게 시간과 힘을 배분할지 고민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봄학기 기말고사가 다가올 즈음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동기들과 함께 설악산 산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산행이라 준비도 부족하고, 일정도 빡빡했지만, 서로 밀고 당기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맛본 성취감과 동기가 매우 컸습니다. 산행 준비부터 올라가는 과정 동안 서로 많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등반 이후 자연스럽게 매번 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바람도 쐬 겸 리프레쉬 하는 산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Q. 올해부터 공식 동아리로 활동하시는데요. 공식 동아리로 등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년 한 해는 PMBA 3기 동기들과 산행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평소 산행에 익숙지 않던 동기도 산행에 경험이 많은 동기의 도움을 받아 가깝고 쉬운 코스부터 시작하면서 산행의 즐거움을 새로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른 전공 학생들과도 친분을 쌓고, 좋은 경험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공식 동아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로 KAIST 경영대학에
오래 자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이제까지 다녀오신 산행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지금까지 설악산과 춘천 오봉산, 북한산, 제주도 한라산 등을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오래 준비하고,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한라산 등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간식으로 컵밥을 준비해준 CJ 제일제당에 재직 중인 동기, 매제의 가게를 소개해줘 등산복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준 동기, 현수막과 간식을 지원해 주신 윤여선 지도교수님 등 모두가 자발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배낭에 'KAIST'가 적힌 깃발과 리본을 달고 산행을 하였는데, 그 때문인지 지나가는 분들로부터 "KAIST에서 왔나 봐~"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KAIST의 일원으로서 더욱 몸가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웠고, 특히 PMBA 동기 회장인 김한관 학우는 라면 국물 한 방울 버리지 않고 다시 가져가는 숟선수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쉽지 않은 산행이었지만 입학 이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 신입회원을 모집 중이신데 많이 신청했나요?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마디해주세요.

MBA 학생뿐만 아니라 교환학생, 경영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우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더욱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산행에 경험이 적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무리 없이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산행 코스와 시간 등을 참여 인원에게 맞춰 조정하고 있습니다. 산행 경험이 많은 학우들이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함께 간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걱정은 넣어 두셔도 됩니다.

Q. 앞으로 동아리 운영 계획이나 산행 계획을 알려주세요.

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산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라산 등반을 위해 제작한 현수막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세계로!'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말처럼 나중에는 해외 산행까지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로 KAIST 경영대학에 오래 자리할 수 있으면 합니다.

신입생들을 위한 학교생활 꿀팁

2016년 KAIST 경영대학 신입생 가족 모두에게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본 기사는 학기 초 신입생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나이, 성별과는 무관하게 신입생들은 낯선 환경의 어색함과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선배들의 여러 경험이 담겨있는 학교생활 꿀팁을 정리해 보았다.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학교와의 정서적 거리를 조금 더 좁히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시설이용 꿀팁



1 도서관

- 대전 본원의 책을 포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하면 서울로 배송받을 수 있다.
- 효율적인 학습 연구 활동 및 정보활용능력 지원을 위하여 연 20회 이상의 도서관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kaist.ac.kr)' > 도서관 서비스 > 도서관 이용 교육'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 한달에 두번 발행되는 동아 DBR 책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정 수량이니 발행일을 노려보자)
- 아웃룩 공용폴더 → 학과 및 부서게시판 → 도서관 → 전자저널/DB 구독현황을 확인하여 고가의 유료 자료를 얻을 수 있다.

2 탁구장

- 후생관 1층에 위치해 있다. 라켓과 공은 개인이 준비하자.

3 후생관 2층

- 학생식당, 건강관리실

4 후생관 3층

- 우리은행, 복사실, 매점, 서점, 우체국 이용이 가능하다.

5 후생관 4층

- 학생도 교수식당 이용이 가능하다. (학식보다 가격은 높지만 음식을 테이블로 서빙해 주며 차별화된 메뉴를 제공한다.)

6 체력단련실

- 7호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헬스장과 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샤워장과 탈의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7 골프연습장

- 1호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35평 규모의 5타석 소규모로 프로골퍼 지도 하에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8 파정사 앞 코트

- 테니스코트와 농구코트가 위치해 있다.

기타 소소한 꿀팁

가숙사 이용

소정사, 파정사의 옥상에서 세탁기 사용이 가능하다. 기숙사 옥상은 언제나 열려 있어 학우들과 도란도란 담소가 가능하며 저녁에 올라가 보면 야경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우는 것은 금물.

경희대 가는 길

봄철 벚꽃놀이 산책을 위해 경희대를 가고 싶다면 지름길을 이용해 보자. 경희초등학교 방향으로 과학원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면 초등학교 운동장과 계단으로 연결된 쪽문을 발견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정문으로 빠져 나와 연못을 왼편에 두고 언덕길을 따라 경희여자고등학교를 지나치면 경희대에 도착한다.

홍릉 수목원 산책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옆 홍릉 수목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차가 불가능하므로 걸어서 다녀오도록 하자.

강의 만족도 검색

새 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 듣고 싶은 강의의 만족도가 궁금하다면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inside.kaist.ac.kr) 바로가기 → 로그인 → Course evaluation results → 검색 → 해당 과목명 클릭

Help desk 이용

-1층 전산센터 내 Help desk를 이용하면 교내 전산환경 기술지원 및 공용장비 대여를 받을 수 있다. -findpeople.kaist.ac.kr로 접속하면 재학생 및 동문들의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다.

컴퓨터 SW 설치

kftp.kaist.ac.kr로 접속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Windows OS,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강의실 스터디룸 예약

urs.kaist.ac.kr로 접속하면 세미나실, 스터디룸, 강의실을 예약해 사용할 수 있다. 강의실은 사용일 하루 전까지만 예약이 가능하니 주의하자.

프린트 토너 이용

각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는 소속 전공 사무실을 통해 학기당 1회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전공별로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소속 전공사무실에 문의하자.

KAIST 경영대학과 세월을 함께한 맛집

개원 20주년을 맞은 KAIST 경영대학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낸 주변 맛집이 있을까? 익히 들어본 곳부터 숨겨진 곳까지, 함께 늙어가는 오랜 맛집을 찾아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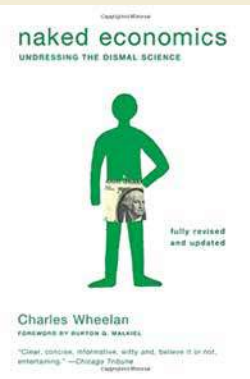
유성관	Food Story	수목원맛쌈밥
회기 터줏대감, 실패 없는 선택을 하고 싶을 때!	한 곳에서 다 끝내 버리고 싶은 날	전복 삼합의 맛이 궁금하다면
자그마치 23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유성관에서의 메뉴 선택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한다. 한우 맛 집이기는 하지만 점심시간 간단히 먹는 전골의 맛도 훌륭하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의외의 장소이다. 고기부터 양식, 바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특별 레시피까지 공개되어있다. 고기를 직접 구울 필요가 없어 편하다. 심지어 학생들에게는 가끔 고기를 10% 할인해주신다는 비밀!	외관은 30년 되어보이지만, 수목원맛쌈밥은 사실 겨우 열 돌을 맞이한 곳이다. 깔끔한 맛을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홍어의 편견을 완전 타파시켜주는 전복 삼합은 정말 군침을 돌게 한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3길 30 전화 02-964-6849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13길 21 전화 02-967-3955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48 전화 02-962-3497

여기가 좋겠네	전골마을	오소리순대(안암본점)
대학가의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곳	비오는 날 급창이 땡길 때	냄새가 나지 않아 여성손님이 더 많은 순대집
매콤한 닭볶음탕이 유명한 18년 전통의 식당. 국 내산 생닭과 감자, 당근, 떡 사리에 소스를 넣고 끓여내 식사로도, 안주로도 훌륭하다. 가격, 양, 맛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빼없는 찜닭을 추천한다.	경희의료원 응급실 골목에 위치한 곳으로 고기, 만두, 버섯, 채소 등의 여러 전골 요리를 파는 곳이다. 다른 전골 요리도 훌륭하지만 이 집의 히든카드는 바로 '곱창전골'! 주인 아주머니가 매일 새롭게 구입해서 손질한 곱창은 축구선수 메시의 플레이처럼 '무결점'이다.	할머니부터 3대를 이어 56년을 버틴 곳으로 기름장에 찍어먹는 백순대가 유명한 곳이다. 오소리는 나 오(蕎)에 적을 소(小), 이할 리(利)로 "나는 적은 이득을 봅니다"라는 뜻이지만, 이름과 다르게 가격은 결코 싸지 않다. 맛은 좋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19길 18 전화 02-968-9112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1가길 42 전화 02-969-7676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4길 16 전화 02-918-9797

naked economics : Undressing the Dismal Science

I Charles Wheelan

Finance MBA Daniela Proano



This best seller engages readers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economics in the modern economic climate by explaining it in such a way that it is entertained and provocative (conversely of what we might think a book on economics is). The author makes the topic comprehensive and appealing, providing a basic introduction of the field with a very objective view – point of the world’s neo - liberalization.

Starting from the basic claim that people seek to maximize their utility as a mean to reach happiness, Charles Wheelan extends across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ssues. We will find chapters on markets, incentives, governments, human capital and so on, finalizing with the economics of development chapter in which he emphasizes that corruption is one of the key factors in the continued under-development of many countries.

The book serves as a reminder that economics is all around the world, where individuals should be aware of its benefits in order to pursue the society’s well-being, acknowledging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More than a book, Naked Economics is a good investment.

데이터 과학자

I 차하리아스 불가리스

정보미디어 MBA, 이종호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기존의 많은 일자리를 새로운 기술이 대체하고, 반면에 그 기술들을 리드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 예상한다. 그중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는 가장 창조적이고 흥미로운 직업으로 이 새로운 흐름에 있어 매우 넓고 구체적인 변화를 선도한다.

이러한 데이터 과학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매우 현실적으로 데이터 전문가로서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쉽게 소화하기 어려운 분석 도구(Tool)나 언어에 대한 설명보다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사고방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하여 자세하고 솔직하게 표현했다. 전산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들도 이 책을 읽으며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첫발을 성실히, 그리고 정확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한다. 필요한 지식을 어디에서 쌓을 수 있는지, 필요한 전문기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소개함으로써 데이터를 공부하고 있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독자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자처한다.

특히 데이터 과학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울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장을 통해 왜 이 분야에서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할지, 그리고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는 무엇인지 알아보게 된다.

이 책에서는 실제 데이터 과학자를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통해 어떤 조건의 사람을 시장에서 찾고 있는지 살펴봄에 거기에 걸맞은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경쟁력 있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데이터 전문가와의 차별화된 전략을 소개한다. 알 듯하면서도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빅데이터의 실체와 그것을 다루는 데이터 과학자의 내면을 따라가는 동안 내가 지금 당장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선행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폭발하듯 축적되는 데이터가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를 다루는 선구적인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I 리처드 브랜슨

테크노 MBA 송원일



최근 한국 전반에 걸쳐 창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며 자연스럽게 해외에 있었던 많은 성공사례 및 창업가들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리뷰를 작성하고 있는 나도 학부 시절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고, 내가 지향하는 사업과의 유사점, 그 당시에 나의 역량을 기준으로 롤모델 삼을 만한 성공적인 창업가에 대해서 많은 리서치를 했었다. 그 결과, 평생 삶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는 길을 걸었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창업자를 찾았다. 그는 바로 영국 버진 그룹(Virgin Group)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리처드 브랜슨은 유독 한국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민간 우주여행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이전에 Virgin Galactic이라는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민간 우주여행 사업을 시작하였고, Virgin이라는 그룹으로 40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왕국을 건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탐욕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3세계에 많은 기부와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재단도 설립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창업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독 한국에서는 주목하는 언론이나 집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는 리처드 브랜슨이 집필한 많은 책 중 가장 현실적으로 사업 및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 창업가가 아니더라도 마케팅, 전략, 인사/조직 등 관리 차원에서 인사이드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어, ‘어떻게 오래된 중고 비행기 한 대로 시작해서 영국의 버진항공을 국영 항공사인 British Airline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시켰는지’, ‘모두가 말렸던 미국 콜라 시장에 버진콜라를 성공적으로 런칭시킬 수 있었던 마케팅, 프로모션 전략은 무엇인지’, ‘전체 5만 명 직원 규모의 400개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지배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지’ 등 경영이라는 테두리 아래에 다양한 분야의 실제 얘기들을 다루고 있다.

버진그룹은 1970년에 설립되었다. 게다가 아직 설립된 지 5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국내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젊은 기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만 하다. 현재 KAIST 경영대학에는 제조업, 창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런 넓은 스펙트럼의 학생들이 모두 재미있게 읽고, 나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부자사전

I 허영만

정보미디어 MBA 권정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 하나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추구하거나 혹은 재테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들을 위해 시중에는 많은 재테크, 부자 관련 책들이 출판되어 있다.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허영만 작가의 '부자사전'으로 총 2권으로 출판된 만화이다. 만화책이라 읽기 좋고, 작가의 메시지도 금방 캐치할 수 있다. 허영만 작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알부자 100명'을 직접 취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소개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에 소개되는 많은 부자들의 성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부정합 수단으로 돈을 벌었고, 어떤 이는 노하우 또는 직관으로 재테크에 성공해서 돈을 벌었으며, 어떤 이는 철저히 모으고 아껴서 돈을 벌기도 했다. 그래서 '부자사전'을 읽은 후에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쉽게 내릴 수 없다. 이 책을 접하는 독자의 성향에 따라 어느 부자의 성향이 더 가깝게 다가오고, 더 멀게 느껴지는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하나이다.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고, 절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사전에 나오는 부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듣고, 각 독자들의 성향에 맞는 길을 찾아 부자가 되었으면 한다.



경영정보전공(MIS MBA) 2006학번 동기모임

지난 2월 20일(토) 강남 노보텔 호텔에서 경영정보전공(MIS MBA) 2006학번 동기모임이 있었다. 올해는 경영정보전공 2006학번의 졸업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동문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희석 교수, 한인구 교수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새롭게 동기회를 이끌고 갈 임원진도 선출했는데, 신임 동기회장에는 김정열 동문이, 신임 총무에는 김나래 동문이 선출되었다.



녹색성장대학원 2016 봄학기 녹색세미나 시리즈

녹색경영/정책 및 에너지/환경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 KAIST 녹색성장대학원에서는 2016년 봄학기 전문가를 초청하여 녹색세미나를 개최한다. 3월 7일(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이희성 의장의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과 파리 신기후체제”를 시작으로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교수, 연구자, 기업가, 관료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5월 12일(목)까지 총 16주간 세미나가 진행된다.



경영대학 2016학년도 봄학기 Dean's Luncheon

2015학년도 가을학기 경영대학 학업우수상(Highest & High Honor) 시상과 경영대학장과의 오찬이 지난 3월 8일(화) 아트리움에서 열렸다. 최우수학업상(Highest Honor)은 각 학과/전공 매 학기 성적 상위 3% 이내, 우수학업상(High Honor)은 상위 3~10% 이내의 학생에게 수여되며, 경영공학부 박사과정의 경우 해외우수학회 참가자에게 우수연구상(Ph.D Excellent Research Award)의 형태로 수여된다. 이번 학업우수상 수상자는 총 65명이며(Highest Honor 25명, High Honor 40명), 박사과정 논문우수상 수상자는 9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배, 이희석, 이병태, 정재민 교수가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글로벌리더과정(GLP) 6기 국내 워크숍 개최

글로벌리더과정(GLP) 6기는 지난 3월 10일(목)~11일(금) 1박 2일간 한국도로공사 인제터널 공사현장 및 한국도로공사연수원으로 국내 워크숍을 다녀왔다. 터널 내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조명부터 사고 발생 시 빠른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시설과 환기시설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인제터널 공사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도로건설부문의 기술적 발전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리더과정(Global Leader Program)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공공부문 리더를 배출해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KAIST 경영대학에서 봄학기를, 미국 UCSD에서 가을학기를 수학하게 된다.



최고경영자과정(AIM) 44기 국내 워크숍 개최

최고경영자과정 AIM(Advanced Innovative Management Program) 44기 국내 워크숍이 지난 3월 25일(금)~26일(토) 1박 2일간 황성에 있는 웰리힐리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AIM 44기는 총 41명 과정생이 입학하였으며, 국내 워크숍을 통해 과정생들 간 네트워크 및 팀별 전략 보고서 계획을 위한 시간을 지도 교수님들과 함께 가졌다.

Mentors' Networking Night

Mentors' Networking Night은 산업별로 섭외된 동문들을 2016년도 멘토로 임명하고 이들 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신임 멘토들에게 올해의 변경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기존 멘토들이 활동후기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 3월 25일(금) 19:30~ 21:30

장소 : 리버사이드 호텔 더 가든키친

섭외	Mentors' Networking Night	멘토 명단공개 & 멘티 참가신청	그룹 자율 모임 진행	설문
	3월		4월~11월	12월
산업별 동문 섭외	· 2016 멘토 임명 · 멘토들 간의 네트워킹 · 프로그램 소개, 활동후기 및 의견 공유의 장	· 멘토 명단 공개 · 멘티 참가 신청 · 대표 멘티 산발	· 개별 멘토링 자율모임 진행 → 멘토가 정하는 일정/장소/ 동행 멘토(회사동료 or 사내 KAIST 동문) · Facebook 후기 공유	만족도 설문 및 의견 수렴

[신규 프로그램의 장점]

Mentor

- Mentors' Networking Night으로 멘토들 간의 네트워킹의 장 마련
- 바람직한 멘토링을 위한 의견 교환
- 멘토링에 열정을 가진 멘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Mentee

- 최고의 멘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 1:1로 매칭으로 내가 원하는 멘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명의 멘토가 아닌 복수의 멘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역별 설명회

KAIST 경영대학은 4월 28일 경영공학 석/박사과정 모집을 위한 대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신촌과 상암 지역에 서의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다양한 전공의 특징을 소개하고 각 전공의 재학생 및 동문이 직접 참여하는 Q&A 세션에서는 입시준비, 학업, 학교생활, 취업 준비 등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일정 및 사전등록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 내 입학 사이트(<http://business.kaist.ac.kr/admiss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공	지역	장소	일시
경영공학 석/박사	대전	KAIST	4.28(목), 오후 4:30
	서울	KAIST 경영대학	5.20(금), 오후 2:00
테크노 MBA/IMBA/	종로	마이크임팩트	5. 3(화), 저녁 7:00
사회적기업가 MBA/	신촌	토스 아트레온점	5.17(화), 저녁 7:00
정보미디어 MBA/	상암	YTN 뉴스퀘어 비안빈	5.24(화), 저녁 7:00
녹색경영정책/PMBA(아간)	강남	토스타워	5.31(화), 저녁 7:00
	판교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6. 8(수), 저녁 7:00
	여의도	미정	6.15(수), 저녁 7:00
금융 MBA/	종로	마이크임팩트	5.10(화), 저녁 7:00
금융공학	여의도	미정	6.28(화), 저녁 7:00

※ 전공별로 행사 일시와 장소가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 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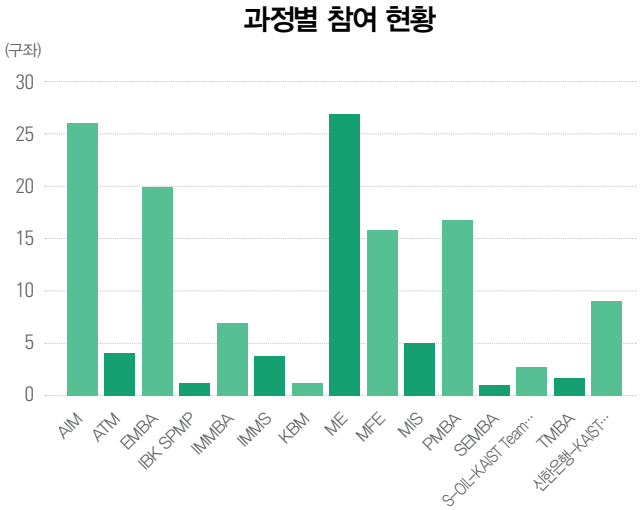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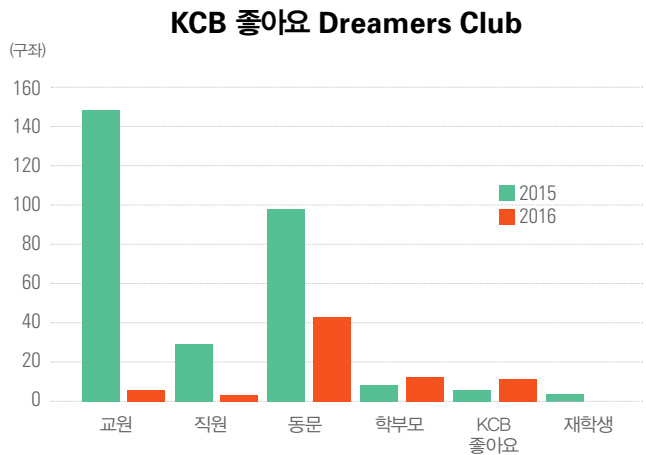
혁신·변화관리과정(AIC) 30기 국내 워크숍 개최

혁신·변화관리과정 AIC(Advanced Program for Innovation & Change Management) 30기의 국내 워크숍이 4월 8일(금)~9일(토) 1박 2일간 대전 KAIST 본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항공 우주공학과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심현철 교수의 '드론의 이해와 실생활에서의 응용'에 관한 강의를 듣고, 스크린 X 상영관을 방문하여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과 상영관을 체험하였다. 이후 지도 교수들과의 Integrative Business Exercise 시간을 통하여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총 45명의 AIC 30기 교육생은 이번 국내 워크숍을 통해 과정생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Beyond Knowledge Building Excellence Together!

KAIST College of Business 좋아요

Dreamers Club Member가 되시면 후원 기간 동안 500만 원 일시납 기부자와 동일하게 예우합니다.



KCB 좋아요 학부원 기부자 이문환 님

테크노 MBA '12 이보람 동문 父

Q1. KAIST 경영대학을 생각하면 어떤 점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녀분이 KAIST 경영대학과 인연을 맺으면서 갖게 된 특별한 마음, 또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우선 자랑스럽습니다. 딸 졸업식날 받은 경영대학 차량용 스티커를 제 차량에 지금도 부착하고 다닙니다. 어떤 분은 주차장에서 저에게 학생이냐고 물으셔서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Q2. 아버님의 인생에서 20~30대에 가장 보람되거나 후회되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요? KAIST 경영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후회되는 점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고요(웃음). 보람된 점은 첫번째, 1969년 4커 클럽 하면서 대통령 상을 받은 경험이, 두번째는, 유니세프와 홀트 아동복지회 등에 50년간 조금씩 후원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후원활동으로 행복합니다. 학생들도 조금씩 후원해 보세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Q3. 개원 20주년을 맞아 2025년까지 World Top 20 Business School이 되기 위한 비전을 새로이 세운, KAIST 경영대학에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KAIST 경영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영대학이지만 국가에 충성하고 이웃과 서로 도우면서 생활하면 바로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도 최고, 경영도 최고라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더욱 훌륭하게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KAIST 경영대학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1월~2016년 4월)



개인기부

〈일반기부〉

허기호 AIM 7기

주현 EMBA 47기

〈후배사랑 장학금〉

구윤모 TMBA 16기

〈KCB 좋아요 월정액 후원〉

김영걸, 이희석, 한인구,故설순희, 정재민, 오원석,

이인무, 홍인기, 김동석, 배종태, 김주인, 노정석,

고용현, 박수웅, 임대기

문현경, 김재철, 안재현, 김정완, 한상철, 허필석,

신원준, 조두희, 김은영, 강보영, 권오훈

심영선, 최서영, 김학기, 조대곤, 이병태, 엄지용,

이재규, 김선희, 전수환, 권오규, 조성형, 신명철,

박광우, 김종창, 박영일, 김정호, 신상희, 문성훈,

임한준, 허순영, 김광선, 이지환, 이찬삼, 강상규,

서병기, 김영아

김영배, 유은진, 마세영, 김민기, 윤미자, 강문영,

이찬진, 김태현, 정나래, 김덕표, 이종열, 김원식,

김혁순, 이해란, 박병호, 주선휘, 김행란, 인영환,

이홍열, 이항숙, 이지은, 신재용, 백윤석, 김은희,

이인선, 김두현, 박호진, 김상현, 하대일, 박건수,

윤주원, 진병채, 김선권, 이진영, 이재원, 허 준,

류성환, 박상찬, 박병수, 유영희, 홍지중, 김종철,

신스캇, 조남웅, 유승오, 유지찬, 김성욱, 박성훈,

최길재, 공정호, 김영배, 이은영, 이길형, 정지연,

조은정, 양성병, 박기우, 정형주, 최정민, 이재규,

양상근, 이세정, 류혜원, 박새별, 김동규, 이상원,

김성중, 이재성, 박기준, 염민경, 장인수, 전창근,

김부길, 정순철, 고우화, 윤태호, 이병식, 오성지,

변석준, 강영대, 강기철, 장재승, 남옥향, 마민철,

서민채, 채승용, 남홍용, 이문환, 이익주, 박이수,

지주희, 김주훈, 차봉수

기업기부

(주)시즈글로벌

BIZZ@KAIST 인터넷 방송 시청자 별풍선

단체기부

〈EMBA 11기 일동〉

강명순, 광형문, 김승민, 김용철, 김인용, 김일홍,

김준홍, 김홍석, 배진호, 서정인, 송주백, 오용근,

우수화, 유영찬, 윤한성, 이성민, 이승율, 이연주,

임상형, 정중훈, 정진구, 정진수, 주 철, 차동진,

최윤석, 한재성, 현종수, 홍상수

〈AIM 43기 일동〉

강종규, 김일만, 김종성, 김종성, 김종현, 김주형,

김한승, 남영미, 류기형, 박영훈, 박진호, 송인규,

오차범, 이 용, 임재정, 전재호, 정문정, 정순문,

하운식, 황영석

〈AIC 29기 일동〉

강병석, 강안구, 고영남, 김범준, 김수찬, 김홍규,

남성현, 박무정, 박선규, 박원균, 박필수, 서경수,

서동인, 성기훈, 신승훈, 양원석, 어용자, 여선남,

오상석, 윤철표, 윤현진, 이동욱, 이무상, 이상권,

이성우, 이수찬, 이영미, 이종민, 이 준, 이철원,

임정호, 장영석, 장유진, 정영훈, 조광진, 조종식,

최종진, 한대철, 한상철, 황용선

KAIST 경영대학의 경영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은 언제든지

[우리는행 270-003359-01-005]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관련 문의

대외협력실 1666-3249,
nrjung@business.kaist.ac.kr